

광주 사람들



강형원(통기타거리 사직골 사장)

천인보(535/1000)



“사직골원 통기타 거리에서 ‘사직골’을 운영하는 강형원이라고 합니다. 장사한 지는 11년 됐구요. 통기타 거리가 완성된 지는 수십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적 스승님이 2003년 가게를 인수하셨어요. 당시 스승님이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셔서 가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 사장님이 바뀐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사직골은 예전에 크라운 광장으로 불렀다고 해요. 40여년 전 한 할머니께서 시

작하신 가게고요. 그때만 해도 통기타 문화는 정권에 대항하는 저항적인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영향이 이어져 왔어요. 저는 20대 때 학생운동 노래패에 있었거든요. 이 공간은 적어도 광주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소신 등을 발표할 수 있고, 그걸 (벽에) 걸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구를 걸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직골은 어떤 이에게는 좋은 추억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직골에 온 모든 이들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든지 나갈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직골이 그렇게 기억됐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가게를 운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공간이 가지는 가치를 지켜줄 사람들이 와서 가치가 보존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해나기자 haena.kim@jnilbo.com

“선수들 다치지 않고 대회 마칠 수 있게 최선”

박예슬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컨디셔너

여자주니어핸드볼 대표팀 트레이너 오늘 아시아여자주니어선수권 개막 홍콩 출국...“건강 다음 목표 우승”

“저는 트레이너로서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대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30일 홍콩에서 개막하는 제17회 아시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를 앞둔 박예슬 트레이너의 각오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컨디셔너를 맡고 있는 박 트레이너는 이번 아시아 대회에 출전하는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을 보좌하고 있다.

1996년생, 15학번으로 졸업 직후인 2019년 광주도시공사에 입단한 박 트레이너는 어느덧 5년 차를 맞았다. 장수 트레이너가 된 그는 핸드볼 입문 계기로 지도 교수의 추천을 꼽았다.

박 트레이너는 “대학교 2학년 때 교수님께서 성격이 좋으니 팀에 가서 선수들이랑 지내보라고 추천해 주셨고, 그 후에 한 달 정도 삼척시청 여자핸드볼팀에서 실습을 했다”며 “그때 매력을 느껴서 핸드볼 트레이너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트레이너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에서 트레이너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서 함께하게 됐다”며 “광주에서 선수들과 숙소 생활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 다른 일상이고 재밌다”며 행복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대부분 구단이 트레이너가 한 명뿐인 핸드볼 종목 특성상 박 트레이너 역시 1인 다역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선수들에게 테이핑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시키고 운동도 가르치고 치료도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장

점을 모아 변형을 하기도 한다”며 “미국이나 호주 쪽을 많이 참고해서 핸드볼 종목이나 한국 선수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운동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오세일 감독을 보좌해 19세 이하인 주니어 대표팀의 트레이너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에 일조하는 게 그의 목표다.

박 트레이너는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다 보니 낙엽만 굴러가도 깔깔 웃는다는 말처럼 해맑다”며 “정말 힘든 운동 동작을 하고 나서도 오탁이처럼 일어나서 저를 쳐다봐준다”며 흐뭇해했다.

이어 “저는 트레이너로서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대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이고, 그다음에 우승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는 만큼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는 게 제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여자 주니어 핸드볼 대표팀은 30일 홍콩전을 시작으로 내달 2일 카자흐스탄, 4일 일본, 5일 쿠웨이트를 상대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조별리그 2위 이내에 들 경우 준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GS칼텍스, 여수지역아동센터와 희망에너지교실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는 29일 여수시 GS칼텍스 예술마루 세미나실에서 ‘14회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박정택 여수시 드림스타트팀장, 김정현 GS칼텍스 지역협력팀장, 이승필 GS칼텍스 예술마루 관장, 김정희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아동들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예술교육 및 체험활동으로 예술적 감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극단 이리바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리듬과 안무 교육’으로 6회 수업 후 8월 중 예술마루 소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아동들에게 예술마루 시설 견학을 통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적 시야를 넓혀줄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K-water 주암댐지사, 페비닐 수거 캠페인

K-water 주암댐지사(김창준 지사장)가 지난 28일 승주 지역 사랑복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에코솔루션협동조합, 송광면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사)고향생각자부모임 상사회와 합동으로 영농폐비닐 수거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K-water 주암댐지사와 지역 주민이 협업, 주암댐 주변 지역 오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K-water 주암댐지사와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여하여 주암호 상류지역에 영농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후원금 전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8일 사회복지 전문기관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광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광주경찰청(여성청소년과)에 전달했다. (사진)

전달식은 광주경찰청(무등홀)에서 진행됐으며, 김남희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현숙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관리처장, 배준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큰 사고를 겪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후원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최권범 기자

산단공 광주본부, 첨단ESG커뮤니티와 김치 나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첨단ESG커뮤니티’와 함께 지난 27일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여름김치 나눔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첨단ESG커뮤니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내 14개 유관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2020년 5월 결성됐으며, 환경정화활동 및 김치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여름김치 나눔 활동에서는 질환 및 장애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해 총 150세대에 3kg의 열무김치를 전달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국립광주과학관, 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임직원 총 35명이 참여했다.

곽지혜 기자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전일 게시판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씨 딸 주리(공무원)양 = 7월1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위드스웨딩홀 5층 엘린홀

부 고 ▽주경애씨 별세, 강만석(현진가구 대표)·성균(전남매일 부국장)·수정씨 모친상, 오선교씨 장모상, 김미숙·김금란씨 시모상 = 발인 7월1일(토) 오전 7시50분, 광주 만평장례식장 101호 (062)611-0000

결 혼 ▽김명학·이정숙씨 아들 진희(의사)군, 손재홍(해피맘요양원장·전 광주시의원)·선경자

날씨와 생활 table with weather icons and forecast data for various locations and times.